

# “악취 때문에”...수령 72년 ‘장성 성산 은행나무’ 이식 시작

### 나무뿌리 도롯가 파손, 열매 악취 주민 불편 야기 군, 장성천 일원으로 107그루 이식...7년 민원해소

‘보존과 제거’의 기로에 놓였던 72년 수령을 자랑하는 황금빛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이식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장성군은 장성을 성산마을 도로변 0.5km 구간에 식재된 은행나무 107그루를 장성천 일원으로 이식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가로수로 식재한 은행나무는 전체 126그루였지만 19그루는 병들어 제거했다.

성산 은행나무 가로수 길은 열매와 잎을 채취해 주민 소득을 확보할 목적으로 1970년대에 식재된 가로수다. 마을을 노랗게 물들인 풍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마을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지라난 뿌리가 보도블록을 망가뜨리거나

건물 담장에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시장 수요 감소로 바닥에 쌓인 채 방치된 열매들은 악취를 자아냈다.

장성군과 성산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은행나무 이식에 대해 고민해 왔다. 수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군민참여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장성군과 지역민들은 은행나무 이식 장소로 마을과 가까운 장성소방서 옆 장성천변을 최종 낙점했다.

장성군은 나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이식 작업에 착수했다.

성산마을 주민 이모씨는 “오랜 시간 함께

한 은행나무를 떠나보내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장성천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성군은 성산 은행나무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될 장성천 일대를 마을의 역사가 담긴 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나무가 있던 도로변은 한층 탁 트인 경관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식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나무 주위로 광케이블, 상수도, 전기선, 통신선 등이 지나가다 보니 뿌리와 가지가 다치지 않게 나무를 들어내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행나무를 최대한 보호하고, 안전 관리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50년 추역을 품은 성산 은행나무를 아름다운 경관으로 재탄생시켜 성산마을의 역사·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장성군이 장성을 성산마을 도로변 0.5km 구간에 식재된 은행나무 107그루를 장성천 일원으로 이식을 시작했다.

## 화순군, 미취학 아동 대상 구강건강사업 추진



화순군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치아 관리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오는 3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어린이 구강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3월 9일(목)까지 보건소에 공문 또는 유선(☎061-379-5324)으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건소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방문시켜 시청각 자료를 통한 칫솔질 방법 등 구강 보건교육을 진행하고, 불소도포는 부모 사전 동의를 거쳐 제출한 아동에게 시술할 예정이다.

어린이 불소도포는 치아의 겉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충치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불소막을 형성하여 세균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 초기 충치 진행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대상 불소도포 사업으로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성장기 아동들의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새봄맞이’ 나주시, 가로수·녹지 정비 구슬땀 계절별 꽃 식재 등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



여기에 국지도 55호선 남평 방향 약 10km 구간 은행나무 도로변에 340여주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이다. 영산포 풍물시장 강변도로 구간에는 왕벚나무를 50여주를 보완·식재하고 인접한 만봉천 제방 뱃쪽 길과 연결해 명품 십리 벚꽃 코스도 만든다.

시는 겨울철 수목 관리를 위해 설치할 월동 바람막이, 제설제 차단막이를 제거했다. 겨우내 보호틀에 쌓여있던 낙엽·쓰레기 수거와 염화칼슘 살포에 따른 수목 관리를 위한 세척작업도 병행한다.

소공원 48곳의 수목 수형조절과 시설물 정비 등 도시 녹지 공원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에게도 사계절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로 교통섬 7곳, 대형화분 350조, 가로화단 51곳 등에는 계절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형형색색의 색감이 수놓아진다.

시는 먼저 팬지·페튜니아·금잔화·데이지·비올라 등 봄꽃 20여종, 25만본을 식재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품 가로수길, 녹지대의 유지·관리에 힘써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 환경 관리를 위해 녹지대 순찰 담당 구간을 지정, 순찰을 통해 수시로 정비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구례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쾌거...군민 직업교육 박차

구례군은 3월 7일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군은 (구)매천도서관을 ‘평생학습 허브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다.

‘평생학습 허브센터’는 ‘30개의 마을학교 지정, 300명의 평생학습 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할 평생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군에서는 평생학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을마다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포함한 평생학습 마을학교와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평생학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획도 세웠다. 청년과 시니어,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인건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취업 교육을 실시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사업별 학습동아리 조직, 맞춤형 직업교육,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학습 축제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구례=박진호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